

한국 재난 서사의 계보학

- 비인지적 낮익음에서 인지적 낮설게 하기까지

황 호 덕*

요약

본고는 현대 한국의 역사적 참사 관련 서사와 SF소설들의 사회적 상상력을 한국문단의 인과적 전개로서 재검토함으로써 재난 소설의 한국적 계보를 재구성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사와 역사를 겹쳐놓는 방식으로 재난을 재-재앙화해야 이야기 구성이 가능했던 이데올로기적 제한으로 인해 한국소설은 자주 비인지적 낮익음의 이야기로 형태화되어왔다. 개발근대화의 끝, 신자유주의의 시작점에 놓인 1990년대 후반의 붕괴와 참사의 경험은 '난사'(難死)로서의 무의미한 죽음들을 '참사'(慘死)로 인지하는 역작용들을 촉구했다. 한국소설은 사건과 사건의 연쇄로서의 역사적 상기('떠올림Erinnerung', W.벤야민)를 통해 재난 서사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붕괴에서 추락까지, 즉 개발근대화의 파국과 신자유주의의 도래라는 퇴락, 재난의 개인화에 대처해 있는 서사들의 미학과 윤리는, 예외의 상례화라는 상황 속에서 미학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담론 공간을 만들어냈다.

한편 자본주의의 파국보다는 세계의 파국을 그리는 것이 윙이했을 2015년 전후 상황은, 소수성의 문제를 재난 서사의 주요 화두로 등장시켰다. 예컨대 페미니즘 리부트로 대변되는 서사의 대전환은 SF라는 프리즘 쪽으로 이끌려 가면서 재난 서사와 유토피아 SF의 결합을 만들어냈다. 이 이행을 여기서는 비인지적 낮익음에서 인지적 공감으로, 나아가 인지적 낮섬으로의 이행으로 설명해 보았다.

주제어: 일반적 등가성, 파국의 등가성, 국지성, 서열, 재앙, 재난, 재-재앙화, 비인지적 낮익음, 난사, 참사, 예외와 상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인지적 낮설게 하기

*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목차

1. 서론: 논의의 지평과 제한성
2. 재앙 이야기, 비인지적 낮익음: 재-재앙화
3. 재난 서사: 난사와 참사, 재난의 상례화
 - 1) 붕괴 서사: 수(數)에서 낮으로, 삼풍백화점·용산·세월호 참사
 - 2) 추락 서사: 재난의 개인화, IMF 이야기, 경제 위기 이야기
4. 사회적 과학과 유토피아 소설로서의 한국 SF: 인지적 낮습의 한국적 형태
 - 1) 자본과 재난 서사의 표현적 인과성과 그 너머-SF의 원천
 - 2) 한국의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와 과학 (밖) 소설들
5. 미래의 기억-재난, 희망 그리고 평범한 미래

1. 서론: 논의의 지평과 제한성

본고는 재난에서 인간의 작위에 귀속되는 심급을 고찰하는 일련의 한국소설들의 흐름을 현대 한국의 참사 관련 서사와 SF소설들의 사회적 상상력을 검토함으로써 계보화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의 인지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2000년을 전후해 재난의 사회적 성격을 뚜렷이 해온 일련의 소설들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인간의 작위로 수정 가능한 현실에 대한 SF적 상상력들을 소설사적 의제로 발굴해 보려 한다.

재난에는 두 심급이 늘 함께 관계해왔다. ‘별 혹은 행성의 불길한 국면’이라는 첫 번째 정의와 ‘갑작스럽거나 커다란 불행’이라는 두 번째 정의가 그것이다. 두 번째 정의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질환]’라는 재난의 개인적 경험이 포함된다(OED, 1989). 제1의 의미와 제2의 의미(calamity)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재난 혹은 재난의 가능성이 보편적인 것인지 국지적·계급적·개인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내 쟁론이 있어 왔다. 홍수나 가뭄, 태풍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과 그에 이은 문명사회의 파괴와 같은

역사적 재난들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있어서조차, 그 피해들은 종종 계급, 젠더,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서열(hierarchy)에 의해 불균등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험 지위와 계급 지위는 같지 않지만, 서로 중첩되거나 서로를 증폭한다.

우선 첫 번째 재난의 행성적 국면, 인류의 행성 공유라는 사태가 그 모습을 드러낸 지구화 시대에서 재난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¹⁾라는 언명은 이를 집약적으로 요약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근대산업사회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보호하는 것이 여전히 도전받지 않는 제일의 순위를 부여”받는 사회인데,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식가능한 부와 인식 가능한 위험 사이의 경주에서 위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 부의 가시성과 위험의 비가시성은 계급 지위와 위험 지위의 중첩과 증폭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산업국들에도 보편적 위험으로 닥쳐 와 있다.²⁾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기후 위기가 결합되어 있는 지금, 이주,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 안보, 신기후체제 등은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위험³⁾이 되어 있다. 장-뤽 낭시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 직후, 인류 붕괴의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상호연결성이 초래하게 될 현대 재난의 성격으로 과국의 등가성(l'équivalence des catastrophes)을 제시한 바 있다. 자본주의 하 화폐와 과학기술이 기초하는 일반적 등가성(l'équivalence générale)의 원리가 기술과 이익의 계산으로만 이루어진 근대 사회를 만들었다고 할 때, 개별 수단들의 목적화 및 목적 그 자체의 산란은 인류를 이제 문명적 과국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의 최적화라는 목적의 수단인 전력 생산의 수단인 원자력 장치 자체의 목적화와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라는 문명적 과국) 과

1) 올리히 백,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옮김, 새물결, 1997, 77면.

2) 올리히 백, 위 책, 90-91면.

3) 브뤼노 라투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박범순 옮김, 이음, 2021, 26면.

국의 등가성에 도달해버린 일반적 등가성의 원리에 맞세운 ‘공약불가능한 평등성’ 혹은 ‘비등가적 코뮤니즘’의 이념⁴⁾은 ‘일반적 등가성’으로부터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공통의 척도가 없는 절대적 특이성으로의 이행을 인류의 과제로서 제시한다.

재난에서 자연과 작위를 가르는 일은 늘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구적 규모의 재난은 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에서 작위를 분할 해내는 과정 없이 재난을 극복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인간의 수단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할 때, 일반적 등가성을 관철하는 ‘근대화 프로젝트’⁵⁾는 그 작위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근대화 이데올로기 비판이 가속화된 계기로서의 붕괴와 참사, 또 이에 대한 서사적 대응을 살펴본다. 근대화 프로젝트의 위기를 보여준 붕괴와 참사에 대한 서사적 대응, 재난의 개인화라는 IMF 경제 위기 이후의 소설들이 이 글 전반부의 해명 대상이다. 아울러, 인재와 참사의 상상력이 사회적 과학과 만나 표출된 페미니스트 SF의 사례를 글 후반부에서 살펴보겠다. 끝으로 만연한 일상의 재난을 인간의 작위로서 사건화하는 한편 새로운 유토피아의 상상력으로 현재를 인지적으로 낫설게 하는 새로운 서사적 흐름들에 대해 약간의 주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재난 서사가 기후 위기를 포함한 지구적 보편성을 논의의 큰 지평으로 삼는다고 할 때, 본고의 논의는 일견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의 근간에 근대화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 때, 한국의 개발 근대

4) ジャン=リュック・ナンシー, 『フクシマの後で: 破局・技術・民主主義』, 渡名喜庸哲 訳, 以文社 2012, pp.70-71. 낭시가 보기에 파국의 등가성이라는 현상 혹은 잠재적 상황은 국가적, 국제적, 시간적문명적 차원을 갖는데(「序文にかえて—ジャン=リュック・ナンシーとの対話」, 위 책, pp.5-8), 이는 일반적 등가성의 원리 하에 진행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비등가적 코뮤니즘과 공약불가능한 평등의 지향 속에서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5) 근대화 프로젝트가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을 통해 모든 저항을 비합리성의 영역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저작을 참고. 브뤼노 라투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박범순 옮김, 이음, 2021, 34-36면.

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서사화되는 장면들에 포착된 재난의 보편성(우연성, 나도 거기 있을 수 있다)과 국지성(필연성, 그/그녀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은 재난의 회피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에도 일정한 암시점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왜 일련의 참사들 이후에 페미니스트 SF 서사가 한국소설의 한 주류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재난 서사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2. 재앙 이야기, 비인지적 낯익음: 재-재앙화

재난 이전에 그 모든 붕괴와 몰락에 이어진 주검들은 재앙으로 간주되었다. 영어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는 재난과 재앙(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함의와 뉘앙스를 가진 표현으로 쓰여 왔다. 재난과 재앙 사이에는 규모의 차이 외에도 유의미한 화용론적 차이가 있다.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뜻하는 재앙과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뜻하는 재난이 사실상 각각 “재앙 ≙ 구앙(咎殃), 변재(變災), 앙(殃), 앙재(殃災), 적구(謫咎), 화구(禍咎), 화앙(禍殃)” 또는 “재난≙액난(厄難), 화해(禍害)”와 같이 의미론적 순환 관계를 이루는 한자 어휘)들이라 할지라도, 재앙은 화(禍), 즉 신이 복을 내리지 않아 생기는 해로움(害也, 神不福也. 从示, 厶聲. 『說文解字』)이라는 함의를 강하게 지닌 채 쓰여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재

6) 두 용례가 다 나타나는 Jones의 영한사전은 Disaster를 “n. 재앙(災殃), 재난(災難) : (financial) 랑패(狼狽)로 해체하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풀이는 거의 모든 사전에서 발견된다. 의미론적 중점은 이 때도 있어서 “catastrophe, n. 사변(事變); 재앙(災殃)”라고 제시되어 있다. George Heber Jone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 Kyo Bun Kwan, 1914.

7) 재난과 재앙과 관련된 어휘들은 다음 글자들 사이의 순환론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의미론적으로도 상호 지시적이다. 咎(허물 구), 殃(재앙 앙), 變(변할 변), 災(재앙 재), 謫(꾸짖을 적), 禍(재앙 화), 厄(재앙 액), 難(어려울 난), 害(해로울 해)

난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간이 막거나 대비할 수 있으나 재앙은 하늘의 일이니 인간이 막을 수 없거나 하늘의 뜻을 살펴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재앙은 일종의 천관(天譴: 하늘의 꾸짖음) 혹은 ‘천벌’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늘을 대신해 성패를 가린다”라는 천인상관(天人相関)의 사고방식 속에서 보자면 세상의 재앙과 이변과 같은 악(惡)은 인간의 부덕에 대한 하늘의 꾸짖음이기에 치자(治者)는 스스로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부덕을 고치는 것⁸⁾ 외에 여기에 관여할 다른 방도는 없다 (천인상관의 논리하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중국 제국의 형이상학과 통치 원리가 여기에 있다.) 천인상관에 따르는 ‘전체’로서의 부덕과 그 소치(所致)로서의 재앙은 도덕적 책임의 대상으로, ‘사안’에 따른 책임과 교정(矯正)을 묻는 일을 통해 치자의 행위와 책임으로 소급해가는 재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커다란 재난과 재앙은 모두 일종의 대참사(catastrophe)이지만, 재난에는 인간의 부주의한 앓과 얼크러진 일에 기인하는 인재(人災)로서의 측면과 그 책임과 방지에 대한 인지적 역작용(cognitive reaction)이 화용론적 뉘앙스로 기입되어 있는 듯 보인다. 반면 재앙은 명명 불가능한 것으로 명명을 강제하는 일⁹⁾을 통해서만 인간의 일로 등기된다. 말하자면 재앙은 무언가를 은폐하는데, 은폐된 다른 죽음을 숨기는 가시적인 죽음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처럼 모호성을 갖는 근대의

8) 中島隆博, 『惡의哲学: 中国哲学の想像力』, 筑摩書房, 2012. 나카지마 다카히로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에 악의 장소를 요구한 주자학보다는 고대의 천견(天譴)설에 이런 사상의 근원이 있다. ‘천견을 받는 군주의 방탕(사회적 악), 혹은 반대로 천인(天人)을 절단하는 세계상하에서 포착한 인간의 세계 속에서만 ‘악’이 사고 대상으로 부각된다.

9) 바디우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어떤 전투도 없이 발생한 그 이상한 붕괴”)을 설명하는 어떤 글에서, 미스터리함=모호함을 가진 명명불가능한 것에 대해 명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재앙’을 해석한 바 있다. 알랭 바디우, 『모호한 재앙에 대하여』, 논밭, 박영기 옮김, 2013, 8면. 여기서 모호성de obscur은 은폐된 다른 죽음을 숨기는 가시적인 죽음(예컨대 소비에트 국가 형식의 죽음)이 갖는 모호성이며, 따라서 재앙은 그 자체로 어떤 사유의 경로를 개시해야 함을 요구한다. (위 책, 12-13면)

재앙은 그 자체로 어떤 사유의 경로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듯하다. 천인상관이 단절된 근대 세계에서 재앙은 필연적으로 인간에 귀책이 있는 재난으로의 분절되기 때문이다. 현대에 있어 재앙은 일종의 잉여 개념이자 한계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닐까. 재앙에서 재난의 뉘을 구별해내는 일이야말로 근대 정치의 과제, 사회의 책무인 셈이다.

한편 근대 한국에서 재난 서사의 기원은 실은 재앙 이야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서사가 질서와 인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거나 결여하는 재앙의 그것은 아마 '이야기'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근대 한국의 대참사들과 전쟁은 외부적 힘들에 의해 시작되었거나 내전적 대치에 점화되어 그로부터 더욱 커다란 위해로 번져갔던 까닭이다. 예컨대 식민지기의 고난과 한국전쟁의 참상들은 한반도의 인민 혹은 한반도의 정체들에 관여되어 있는 대로, 외부의 강한 힘들에 의한 '천하' 격동의 결과들이었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 땅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를 피할 수도 이해(articulation) 할 수도 없을 때, 따라서 인지적 '서사'의 시퀀스들을 조직할 수 없을 때, 참화는 천견(天譴)이 되고, 기복과 방재(防災)의 제사¹⁰⁾가 된다. “6.25를 겪고 70년대의 근대화 과정의 거치면서 우리 소설에서 제일 낮은 작품을 들라면 윤홍길의 「장마」(1973) 오른쪽에 나설 작품은 많지 않으리라”¹¹⁾고 할

10) 재앙을 막는 제사를 뜻하는 禳(營)에서 보위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설문해자는 이 제사를 이렇게 풀이한다. “명주실을 설치해 묶어 돌레를 만들어서 해, 달, 별, 산천에 비바람, 눈서리, 장마와 가뭄, 역병을 막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示를 따르며 榮(營)의 생략형이 받음이다. 일설에 禳은 '보위하는 것'이니 재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 한다. 예기에 “雩는 禳이니 장마와 가뭄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設蘇蕪爲營，以禳風雨·雪霜·水旱·癘疫於日月星辰山川也。 从示，榮(營)省聲。 一曰禳·衛，使災不生。 《禮記》曰：“雩，禳，祭水旱。”

11) 김윤식, 「우리 문학의 샤머니즘적 체질 비판」, 『운명과 형식』, 숲, 1992, 204-205면. 김윤식은 이 글에서 동 시기 작품인 「장마」의 샤머니즘적 체질이 주는 '낮익음'과 「객지」(1971)의 분명한 목소리, 합리적 논리, 리얼리즘적 체질의 '낮춤'을 대치시키는데, 김윤식은 이창동(「소지」)과 임철우(「아버지의 땅」)로 이어지는 전쟁과 분단, 내전, 정치에 의한 개인의 재화(災禍)에

때, 거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은 한국의 재난 서사에서 몹시 낮익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윽고 할머니는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면서, 합장한 두 손바닥을 붙이 나게 비벼대면서 샘솟듯 흘러내리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늙고 추한 얼굴을 들어 꾸벅꾸벅 수없이 큰절을 해가면서,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신령님께 감사하고 조상님네들께 감사하고 터줏구신에게 감사하면서, 번갈아 땅바닥과 천장과 사면 벽을 향하여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뽕뽕이질을 치면서 미쳐 돌아가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가진 소박한 신앙과 모성애가 우리 모두의 가슴 구석구석을 뜨겁게 적시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모두 믿기로 했다.¹²⁾

요컨대 ‘재앙 이야기’라는 비인지적 낮익음의 서사가 먼저 있었다. 빨갱이 친삼촌과 육군장교 외삼촌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한민족의 총체적 재난을 하늘과 땅의 민담으로 전화시켜 화해시키는 이 소설을 평하며 김윤식은 “이곳에서는 현상과 본질의 미분화 상태를 막바로 보여 주고” 있고 “원근법이 거부된 민화의 세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민화적 시각”이란 근대주의자의 원근법 속에서라면 어느 쪽에서든 악과 죄를 생산해야 하는 인지적 과정을 회피하면서도, 재난의 경험을 호혜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김윤식은 이를 “한민족의 생명 평등 원칙” 하에서라고 썼다)으로서 이른바 “자연 질서와 인위적 질서의 마주치는 지점에 몸을 두고 있는 것”이다.¹³⁾ 인위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대한 구성과 표현은 바로 이 낮익음의 계보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성과 표현의 계보는 뒤에서 보겠지만, “자연 질서와 인위적 질서의 마주치는 지점에 몸을 두고 있는 것”을 뜻하며 “부적을 주렁주렁 달아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의 귀신 쫓기에 틈이 없는 문학이 우리 문학의 주류라면 그 문학은 ‘우리 문학’임엔 틀림없지만 우리의 ‘근대문학’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터”라고 쓰고 있다.

12) 윤희길, 「장마」, 윤희길·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미비우스의 띠 장마 아홉 컬러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창비 20세기 한국소설 28』, 창작과비평사, 2005, 184-185면.

시각에서 어른과 그 어른의 어른들을 그려내는 허다한 한국의 재난 서사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가 듣는 이야기, 세계를 보는 한계들을 두는 방식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난경이나 일천함과는 관계되지만, 한 비평가의 언급처럼 재앙에 대한 분절된 이해의 실패와 대참사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일 터¹⁴⁾이다. 즉 재앙과 재난 사이에서만 적혀질 수 있는 재앙 이야기가 한국의 재난 서사의 한 유형이었다는 말이 되겠고, 이를 여기서는 “비인지적 낮익음”이라 명명해 보려 한다. (여기서의 비인지는 인지를 넘어서는 한편 인지로는 표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超)인지일 수도 있겠다.)

비평가 김윤식의 진술처럼 이 “낮익음”의 계보들이 대체로 1980년대까지 존속했다고 한다면, 또 한국문학 역시 “현실이 합리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풍토(근대적이 못 된 사회)라면 당연히 과학 미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¹⁵⁾이라고 한다면, 필자로서는 그건 오히려 한국에서는 미달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거나 의도적인 누락·거부라고 보고 싶다. 재난의 경험을 재앙의 이야기로 변안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거나 의도적인 제(諸) 과학의 거부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재난의 재앙화는 책임 있는 자의 면책에 의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장치로서 볼 때 외부의 과학에 의한 가공할 쇼크로부터 재난의 경험을 진승하기 위해서도 일어난다. 과학의 이름을 한 폭력으로부터 문(文)으로의 후퇴가 만약 모종의 제3세계적 근대 경험이라면 이 문은 처음부터 재앙에 가까운 재난에서 시작되며 그 서사화는 재난의 시간에 합당한 자기만의 장치를 갖는다. 만약 이를 ‘비인지적 낮익음’으로 규정해 보자면, 근대

13) 김윤식, 「6.25 전쟁문학」, 『운명과 형식』, 숲, 1992, 155-158면.

14) 복도훈은 “재난 소설에서 주인공은 그 파국의 세계에 대해, 그 원인에 대해 무지한 어린이이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으며, 그/그녀는 동시에 파국과 절멸 이후의 신생(新生)의 주인공으로 약속받는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복도훈, 『목시록의 네 기사』, 자음과모음, 2012, 175면.

15) 김윤식, 「우리 문학의 샤머니즘적 체질 비판」, 위 책, 219면.

한국의 재난 서사의 전기적 형태는 근대문학이라는 소설 형식과 패관(稗官)들이 시정에서 주위 담는 민화들의 서기체계인 잡설 사이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3. 재난 서사: 난사와 참사, 재난의 상례화

직접적 국가폭력의 경우를 별도의 숙고 대상으로 한다면¹⁶⁾, 한국에서 재난을 인지적 분석의 서사로 본격적으로 형태화한 시점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하나의 계기로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일련의 죽음들은 개발근대화 패러다임의 붕괴의 시작으로 보였고, 그 패러다임하에서의 국가적·공적 ‘희생’과 ‘번영’에의 약속, 전체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되문도록 했다. 피할 수 있었을 재난과 회수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의미화할 수 없는 죽음들은 사적인 불운이나 팔자로 봉쇄되었다. 민주화와 탈식민 국가의 결합이 가시화되기 전의 죽음들은 민족수난사의 일부였거나 가련한 불행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죽음들은 대개 사적 상황에서 천재를 만나는 일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없는 자가 처한 불가피한 위험과 부주의의 결과, 번영을 위한 죽음들, 해방투쟁의 촉매 혹은 희생 등으로 간주된 듯 보인다. 국가와 미래에 회수되지 않는 일련의 집단적/사적 죽음들에 대해 그 무의미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혹은 무의미로 뚫으로써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있어 왔지만 한국 서사에서 국가적 공공성의 심급을 넘어 이 문제를 숙고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16) 이 문제는 이행기 정의의 과정들과 함께하는 한국 리얼리즘 서사의 중요한 축이지만, 별도의 논고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한편 비근한 예로 일본의 서사와 운동들에서 이를테면 “난사(難死)”¹⁷⁾와 같은 말로 상징되는 ‘무의미한’ 죽음들에 대한 사고, 국가와 미래에 의해 회수되는 일을 거부하는 운동들은 패전과 공습, 원폭의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제화된 문제였다. 제2차세계대전 도발과 그에 이은 패전이라는 무의미한 전쟁 속에서 유의미한 죽음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전후 일본 국가의 딜레마였다.¹⁸⁾ 따라서 무리한 이 의미화 작업에 맞서 ‘난사’를 난사로서 묻는 일의 함의는 적지 않다.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평화 및 민주주의 사상가·활동가 중 한 사람”(김종철)으로 이야기되는 오다 마코토는 대공습 속에 살해된 사람들의 난사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을까. ……(중략)……그러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확실한 것은 그들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에서도 ‘산화(散華)가 아니고 천재(天災)에 의한 죽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말하자면 ‘난사(難死)’라는 사실 단지 그것뿐이다”¹⁹⁾라고 말한다. 오다 마코토가 “천재에 의한 죽음이라고 밖에”라고 쓰고 있다고 해서 이를 하늘의 일로 인식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설명되지 않는 무의미한 난사를 묻는 일이야말로, 전후 일본에

17) 오다 마코토의 박정희 정부 및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와 활동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예림, 「정체(政體), 인민 그리고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 『역사문제연구』 제32권, 2014.

18) 이영재, 「국민의 경계, 신체의 경계」, 『아시아적 신체』, 소명출판, 2019, 147면. ジョン・ダワー『敗北を抱きしめて』三浦陽一・高杉忠明・田代泰子訳, 岩波書店, 2001, p.315. 존 다워는 “국민적인 참회와 속죄의 행위 모두에 있어서 죽은 자를 어떻게든 긍정적인 형태로 위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꺾인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1952년 5월 2일 열린 최초의 전국전 물자추도식에서 쇼와 천황 히로히토(裕仁)는 “전 국민과 함께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의 진전을 비”는 일을 통해 죽음을 평화와 진전이라는 미래태의 언설로 내놓는데, 이후 이런 식의 ‘의미화’는 하나의 규범이 된다. 이영재, 위 책, 147-148면.

19) 오다 마코토, 『전쟁인가 평화인가: 9월 11일 이후의 세계를 생각한다』, 이규태·양현태 옮김, 녹색평론사, 2004, 124-125면. 오다 마코토는 “난사에 시점을 고정했을 때 나는 비로소 여러 가지 것이 보이고, 역으로 ‘산화’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서 또 베트남전쟁 반대와 한국의 민주화에 걸쳐 “공(公)=국가의 원리에 대치해, 공(公)에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공(公)과 철저히 관련되는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만들어”²⁰⁾(鹿野政直)낼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9.11과 3.11이라는 두 사건에 대치하고 있는 오다 마코토의 난사(亂事)에 물음(21)은 엄습하는 재난과 일상화된 신자유주의의 실질적 위협들을 심문하는 틀로서도 일정한 유효성을 획득해 갔던 것이다. 공습, 원폭, 전쟁, 산업 재해에 의한 죽음을 난사로 직시하는 것은 이를 구출하는 산화(散華)의 전략·지배 권력의 의지에 맞서서 난사를 난사의 형태로 두는 저항으로, 이를테면 무의미의 심연을 통해 역사와 현재의 책임을 추궁해가는 행위일 수 있다. 무의미한 죽음을 의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추궁하는 실천의 장 안에서 무의미인 채로 남겨 두는 일은 착취, 동원, 전화(戰禍), 산재(産災), 테러, 위협의 외주화 등으로 점철된 근현대 경험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념(commemoration)에 탈취당하지 않으면서 “국가와 동시대의 세계에 대한 언어를 발견”²²⁾(子安宣邦)해내는 일일 수도 있었다. 요컨대 죽음의 의미 따위는 없다. 죽음의 책임이 있을 뿐이다.

1) 붕괴 서사: 수(數)에서 낮으로, 삼풍백화점·용산·세월호 참사

난사(亂事)에 물음은 참사의 책임과 애도와 우울의 문제로 이행할 수 있다. 난사는 애도 불가능한 죽음이지만, 그것 자체로 국가이유(Raison d'État)에 관한 실행적 질문이기에 재난과 죽음에 대한 맹목적 질의의 장소가 된다. 다시 말해 그 물음이 국가이유와 사회이유의 문제로 이행해갈 때 참

20) 오다 마코토, 위 책, 122면에서 재인용.

21) 심정명, 「3.11과 전후의 끝: 무의미한 죽음과 애도의 문제」, 『일본학보』 제106호, 2016.

22) 오다 마코토, 위 책, 122면에서 재인용.

사예의 책임과 사회적 애도라는 의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난사가 무의미한 죽음에 대한 질문의 제기이자 책임의 소재에 대한 물음의 개시라면, ‘참사(慘事)는 부작위를 작위의 영역으로 이행시키고 책임의 소재와 개선의 경로를 추궁하는 일에 가깝다. (물론, 그 과정이 수월할 수 없고 온갖 협잡과 난관이 개입하는 전장임을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보아왔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수(數)가 아니라 고유한 얼굴이 재난 서사의 핵심적 문제가 된다. 삼풍백화점 붕괴에 관한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본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 뒤 조간신문에는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이 실렸다.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옆면에는 한 여성명사가 기고한 특별 칼럼이 있었다. 호화롭기로 소문났던 강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대한민국이 사치와 향락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나는 신문사 독자부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신문사에서는 필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독자부의 담당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가 거기 한 번 와본 적이 있대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안대요? 나는 하아하아 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울음이 그칠 때까지 전화를 들고 있어 주었던 그 신문사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맙게 생각한다.²³⁾

역시 ‘장마’가 끼어들지만, 소설적 물음의 성격은 판이해 보인다. 사망자의 명단과 수가 아니라 낱날의 낯얼굴의 문제로 이행하는 이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가 아니라 그 죽음을 헛되이 의미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명이 부상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늘의 뜻”이라는 면책의 언설을 추궁하는 어조가 울음 섞인 물음의 연속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고유한 얼굴이 떠올라 있기 때문이다. 여

23) 정이현, 「삼풍백화점」, 『오늘의 거짓말』, 문학과지성사, 2007(2020), 65면.

기서 “얼굴에 대한 접근은 가장 기본적인 양태의 책임감”으로, “혼자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타자” 혹은 “혼자 죽게 하면 그의 죽음에 공범이 되리라도 하듯” “타자의 존재권에 대한 강한 윤리적인 명령”²⁴⁾으로 경험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얼굴들을 떠올리는 일이란, 타자의 얼굴에 대한 주디스 버틀리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일종의 소리 혹은 의미를 비워내는 언어의 소리, 어떤 의미론적인 뜻의 전달에 선행하며 한계를 짓는 목소리내기(vocalization)”²⁵⁾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화자는 그들의 희생 위에서 서 있는 우리들의 번영과 같은 언설을 거부한다. 그 죽음들을 짓밟고 서 있는 우리들의 참상을 직시하는 일은 선부른 의미론적 봉쇄=재앙론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의미가 명제화되는 희생론 역시도 거부하는 듯 보인다. 정이현의 「삼풍백화점」에는 살아남은 자에 대한 참사 당시의 집중과 열기가 배제되어 있으며, 죽음과의 대면도 사실상 회피되어 있다. (그녀는 명단에서 삼풍백화점의 점원이었고 가난했고 기형도의 시를 읽었고 또 불안했던 자신의 한때를 같이 해 준 가난했던 친구의 이름을 찾지 않으며, 오랜 후에야 그녀의 이름을 미니 블로그들 사이에서 찾아 헤맬 뿐이다.) 바로 그렇게 무의미, 공백의 공포를 그대로 안을 수밖에 없는 서사의 동선들은, IMF와 용산이라는 재난의 계급화 모멘텀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전화하는 듯 보인다. 이 소설 자체가 가팔라지는 계급의 격차가 재난의 가깝고 멍에 관계됨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용산참사와 4.16. 세월호참사 이후 작성된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 즉 「웃는 남자」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연작은 애도의 실패 후에 온 우울의 시간을 거쳐 무의미의 피안에서 애써 찾아낸 삶의 지속이라는 문

24) Emmanuel Levinas and Richard Kearney “Dialogue with Emmanuel Levinas”, *Face to Face with Levinas*, SUNY Press, 1986, pp.23-24. 주디스 버틀리,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윤조원 옮김, 필로소픽, 2018, 190-191면에서 재인용.

25) 주디스 버틀리, 위 책, 193면.

제를 다룬다. 그리고 소설들은 촛불 ‘혁명’의 현장/한계를 대면하는 순간에서 끝난다. 두 소설은 혁명의 광장에서 잠깐 조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이라는 하나의 정동을 공유하는 듯 보인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고립되고 사망한 과정은 여러모로 1996년에 서수경과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겪은 일을 연상시켰다. 안에서 쌓은 바리케이드와 고립과 화재. 남일당 옥상에선 철거민들의 망루가 불타는 광경을 뉴스로 보면서 서수경과 나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각자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다. “우리에게도 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건 이후로 남일당에 간 적이 없었다. 가봤자. 무력감만 확인할테니까.²⁶⁾

계집女人 나. 惡女 OUT이 지금 그의 언어라면 그것이 그의 도구인데 그의 도구가 방금 여기서 내게 한 일을 그는 알까. 그는 자기처럼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여성들은 왜 보지 않을까. 惡女라고 빨갱게 지칭할 때 ‘그 사람’의 여성은 그렇게 선명하게 보면서도, 그 팻말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계속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니까……²⁷⁾

「디」에서 디가 목격한 세월호 1주기 집회에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의 주인공 ‘나’와 그의 동성 연인 서수경도 참가하지만 여기에서 혁명의 희열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일까. 혁명이 이루어진 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은 마침내 도래한 것

26) 황정은,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294면.

27) 황정은, 위 책, 306면.

일까.” 아파 아닌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우리’들은 그 광장에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결렬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모섹슈얼리티를 비롯한 소수성의 설정이 광장을 통과하며 여성 혐오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있는 위의 장면은 탈환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회상뿐 아니라 쉽지 않을 미래의 예감까지를 포함한다. 소설은 혐오의 정동과 관련된 일상의 재난, 다시 말해 “우리는 겨우 살아남았다”의 감각에 까지 도착한 듯 보인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에서 1987년과 1994년과 2009년 2013년은 서로가 서로를 상기하게 하는데, 이를 지배하는 감정이 부끄러움이다. 이 소설 전체가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고 말하는 언어나고도 할 수 있다. 재난들의 서사화의 시차는 재난-상가-글쓰기라는 동선과 현재의 독서-과거의 상가-글쓰기라는 재난의 역사들의 현재화를 동시에 서사적으로 조직하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가 전체로서 지금 현재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소설을 지배하는 우울의 정동은 애도의 실패, 아니 애도로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감정적 결과일 것이다.

2) 추락 서사: 재난의 개인화, IMF 이야기, 경제 위기 이야기

재난은 대규모의 공공성으로 들이닥치지만, 재난에 따른 죽음들은 철저히 사인화되어 간 것이 바로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이었다. IMF 이후의 한국 소설이 흔히 범의 도착과 추락의 결말로 유도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재난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는 듯 보인다.

발신처인 지방법원이며 ‘타경2169’ 같은 생전 처음 보는 기호가 그의 신경을 자극한다. 그건 그가 지상에서 거주해오면서 무엇인가 빼앗길 때 언제나 먼저 오던 신호다. 사냥꾼을 인도하는 사냥개 같은 게 바로 그런 기관의 이름과 숫자, 기호다. 부동산 임의경매, 최선순위 담보물건, 배당

요구 같은 생소한 단어와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부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등이 나열된 문안……(중략)……“야. 지금 우리 국민 절반이 우리 처럼 전세 들어서 사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전세금 뺏기고 쫓겨나면 이게 무슨 국가고 법이나 말이야. 우리 같은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도 잘 되고 법도 의미가 있지.”²⁸⁾

중산층의 붕괴로 상징되는 환란과 뒤이는 재난들은 가장 사적인 장(場)인 가족의 붕괴로 나타나곤 하는데, 성석제의 소설집 『참말로 좋은 날』(2006)은 파편화되어 있는 대로 이 시간의 경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소설들 중 하나이다. 딸은 아버지에게 “너도 밤낮 놀지 않느냐. 너는 사이버머니 갖고 고스톱 치고 야동 보고 놀면서 왜 나는 못 놀게 하느냐”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듣는다) “아들은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소파에 얼굴을 닿게 한 뒤 무릎으로 등을 짓눌렀다”는 표현 뒤에는 “맨날 먹고 놀고 자빠져 자고, 그러면서 뭐 보태준 것 있다고 컴퓨터를 부순다 만다 지랄발광이야? 아빠면 다야?”(「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외침이 이어진다. 남편은 아내에게 “왜 아니꼽송? 꼬우면 찢어지자고. 애 데리고 장모한테 가”라고 말하고, 이웃에게 “뒤편 형씨? 야 인마, 대추씨만한 놈이, 좃만한 놈이 뭐 안다고 각자 알아서 겨? 야 이 좃만야, 너 오늘 뒤져볼래?”라고 말한다. 서로가 이해관계로만 등장하는 한편, 서사는 “그렇게 잘났으면 됐시다. 나 같은 개털 더 볼 일 없겠네”라는 타산의 진술 속에 이어지거나 끊어진다.²⁹⁾

폐허의 알레고리들 속에서 말이 아니라 냄새가 소설 전체를 채워 간다. 딸은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아내는 점점 귀가 멀어가고, 가장(家長)의 사이버머니만이 점점 커져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경제가 인위적으

28) 성석제, 「저만치 떨어져 피어 있네」, 『참말로 좋은 날』, 문학동네, 2006.

29) 이 인용문들은 동 작품의 해설에서도 인용한 바 있다. 황호덕, 「절단(을 절단)하는 이 사람— 말이 말이 아니고, 법이 법이 아니며, 인간이 인간이 아닌」, 성석제, 『참말로 좋은 날』, 문학동네, 2006.

로 만들어 낸 예외적 상태들 속에서, 법과 질서와 예외와 도덕 등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법의 문턱에 놓인 생명들의 살벌하기 짝이 없는 음성기호들은 말logos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phone에 가까워진다. 집 안의 모든 사물들이 각자의 냄새를 피울 때 이 가족은 한 무리의 혈벗은 생명을 거쳐 추락과 죽음에 이른다. 이들이 보여주는 추락의 가파른 속력은 이 추락이 이미 잠재해있던 것, 상례 안에 있었던 예외의 출현임을 알게 한다. 일상이 재난의 서사의 거점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서 2000년대를 지배한 시간은 재난의 연속이었고, 그 이야기들은 지금껏 한국 서사가 그려낸 적 없는 세계였다. 국가는 재난을 생산한다, 자본은 재난을 생산한다라는 언명이 일반적 앎으로 각인된 시대, 재난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상례로 ‘인지’된다. 일상의 재난이 발견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재·발견이자,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위기들과 참사들에 대응하는 재난의 서사화 과정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그 서사화는 어렵다. 여기엔 재난에 처한 개인만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본은 얼굴을 갖지 않는다. “시키는대로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채무자 명단에서, 가압류 조치에서 빼달라고 빌고 또 빌고 싶었지만 우리를 상대해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라 법이고 회사고 은행이었다”라고 할 때, 이 얼굴 없음은 종래에는 재난에 처한 인간의 말소에 도달한다. 『투명인간』(2014)에서 조금은 모자란 만수는 월남전에서 죽은 똑똑한 형과 공황 참여로 체포되어 고문당한 후 사라진 셋째 석수를 대신해 가족을 건사하는 인물이다. 만수는 가스 중독으로 바보가 된 둘째 누나를 돌보며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고 막내 동생의 결혼자금과 살림집과 식당 마련을 돕고 종적을 감춘 석수의 아들을 맡아 키운다. 하지만 만수는 부도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법 점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해 빛을 갚다가 마침내 ‘투명인간’이 된다. 식민지 수탈, 월남전에서의 죽음, 민주화운동과 탄압과 실종, 가스 중독,

파업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삶의 결절들 모두가 일종의 재난으로 재서사화되는 이 소설은 신자유주의 후의 자본의 재난을 기화로 하여 그 모든 한국현대사의 재난을 상기하는 글쓰기에 가깝다. 개인이 상례적으로 처하는 재난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서사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명인간』(2014)의 후기에 적은 진술은 재난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현실의 쓰나미는 소설이 세상을 향해 세워둔 독을 너무도 쉽게 넘어 들어왔다. 아니, 그 독이 원래 그렇게 낮고 허술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소설은 위안을 줄 수 없다.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함께 느끼고 있다고,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써서 보여줄 뿐.

이 소설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한 이후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³⁰⁾

‘현실의 쓰나미’, 다시 말해 일상이 재난이다. 서영채는 이 대목을 떠올리며,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와 함께 이 소설을 세월호 이후의 서사, 즉 미학으로 하여금 정치에 이르게 하는 윤리의 힘으로 재독해한다. “장인의 기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은 어느덧 공동체의 어떤 사건을 책임지고자 하는 시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윤리란 한 개인의 영역에 속하지만 윤리적 의식을 가진 그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개인이 되던 윤리가 정치가 된다”³¹⁾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재난 앞에 잠재적으로 함께 놓였을 개인 ‘시민’ 작가의 위상과 미학-윤리-정치의 성격을 이해하는 단서처럼 보인다. 역사의 전위라기보다는, 후위에 함께 있음³²⁾ 혹은 우리는 함께 존재한다는 의식 속에서 전체로서의 역사를 하나의 순간 속

30) 성석제, 「작가의 말」, 『투명인간』, 문학동네, 2014, 370면.

31) 서영채, 『부끄러움과 죄의식』, 나무나무출판사, 2017, 450-451면.

32) 황호덕, 「지금 문학이 어디 있는가, 스무고개-문학의 위치, '전위' 문학과 '후위' 문학/비평 사이에 『하이픈』, 『문학과 사회 하이픈』, 2021년 여름호, 문학과지성사, 2021.

에서 상기하는 사람, 우리 시대의 작가란 아마 그런 형상일까.

저개발의 재난이 재앙이나 개인의 불운으로 인지되었다면, 이제 재난이 삶에 잠재하는 상대적 위기의 돌출이자 전체의 예로서 서사화될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자기책임으로부터 개인의 재난을 구출하는 일. 개발주의에 대한 환상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성격이 인지적 변화를 겪었다고 할 때, 문제는 이를 어떻게 사적인 서사로 만들어내면서도 사상황(私狀況)의 공상황(公狀況: 오다 마코토) 과정을 통해 함께 있음의 감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된다. 오히려 상례의 예인 개인의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재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소설이 삼풍백화점, 용산, 세월호라는 이름을 거쳐 발견한 것이 이것이다.

4. 사회적 과학과 유토피아 소설로서의 한국 SF: 인지적 낮섬의 한국적 형태

1) 자본과 재난 서사의 표현적 인과성과 그 너머-SF의 원천

자본은 재난을 생산한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폭력 없이는 팽창할 수 없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욕망은 그 팽창 이후에 그 폭력의 근원을 두려워하거나 선망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사후적인 감정에 가깝다. 자본은 폭력과 재난을 통해 팽창한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란 이때 팽창할 수 있는 자유에 가깝다. 자본은 더 이상 팽창할 수 있는 땅=시장이 없다면, 어떤 지역에 재난을 불러일으키거나 재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성장해왔다. 해당 장소를 백지상태로 초토화하고 초토 위의 재건을 통해 팽창해 온 것이 '재난 자본주의'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본은 재난을 생산한다. 대홍수와 대화재 같은 성경적 환상에 기

반을 둔, 백지상태를 갈망하는 ‘순수한 자유’의 이념은 자유시장의 역사가 쇼크 속에서 쓰인 것임을 알게 한다.³³⁾

소설은 자본주의 시대의 서사시이다. 그것은 돈을 다루고, 돈이 벌리는 과정은 재난의 자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늘의 소설이 재난을 다루는 것은 필연적이다. 자본주의 이전에 그것은 재앙으로 불렸다. 재앙은 천벌을 뜻하는데, 천벌은 인간의 부덕의 소치로 간주되는 한편 통치자의 부덕에 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제 현대의 서사시는 재난 그 자체의 인과적 표현이 된다.

자본주의가 자유로운 교역이 아니라 폭력과 정복을 바탕으로 한다는 생각은 이미 마르크스가 유럽 밖으로의 자본주의의 팽창을 살펴보며 이야기한 바 있다.³⁴⁾ 더 이상 자본주의가 팽창할 장소가 없다면, 자본은 존재하는 것의 파괴 혹은 백지화를 통해 존재하던 삶의 장소들을 백지상태로 만들고 새로운 시장으로 편입하려 한다. 고도화되고 대안이 삭제된 자본주의가 계속 팽창해가고 있다면, 재난의 상상력의 증대는 필연적이다. 그렇다고 할 때 재난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자율적 조정의 메커니즘이 전제하는 불시적 사고들과 그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장의 자기 조절적 기능에 의한 자본주의의 진화를 한국의 소설이 적절히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를 수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 그 자체가 대서사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일지 모른다.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자본은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가. 나옴이 클라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쇼크 독트린의 신봉자들이 보기에,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백지를 만들

33) 나옴이 클라인,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피물이 되는가』, 김소희 옮김, 모비딕북스, 2021, 31-32면.

34) 가라타니 고진, 「교통에 대하여」,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김경원 옮김, 이산, 1999, 189-190면.

어내는 위대한 구원의 순간은 홍수, 전쟁, 테러 공격이 일어날 때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순간이 오면, 이 화가들은 붓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한다.”³⁵⁾

어떻게 보면. 백지를 만들어내는 구원, 묵시록적 재난과 구원의 이야기야말로 각각 자본과 SF가 나눠 가진 현대의 대서사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최초로 예언한 인물은 장 보드리야르였다. 일찍이 보드리야르는 후기 자본주의 속에서라면 미래가 현재에 미리 존재하는 시뮬라크르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 하이퍼-리얼리티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상이 더 이상 관여할 영역도 없고 현실성의 원칙도 사라졌기에, 이런 시뮬라크르의 지배하라면 SF 역시 일종의 시뮬레이션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³⁶⁾ “우리는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여기 이미 있으니까. ‘실재-유토피아적 상상력-상상’의 동선은 ‘실재=SF=상상’의 평면으로 뒤바뀌었다. 이렇게 ‘실재의 위성화=형이상학의 종말=환상의 종말=SF의 종말’이라는 보드리야르의 등식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이미 미래를 당겨쓰고 있고 당겨쓴 미래가 구성하는 과학이 보여 줄 미래란 현재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셈이다.

SF에의 모종의 이의는 소급해보자면 에른스트 블로흐의 진술에서도 발견되는데, 블로흐에게 SF란 일종의 시민주의적 유토피아로서 정치경제학의 후퇴 혹은 부르주아적 개량주의의 소산이자 경험과 유토피아 사이의 물화된 이원론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SF란 경제 관계를 경제 정책으로 번안하는 마르크스적 미래의 설득력 없는 모방이었기 때문이다.³⁷⁾ 블로흐에게 이 장르는 대항이 아닌 통합의 장르인데, 구체적 현실

35) 나오미 클라인, 위 책, 34면.

36)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크르들과 공상과학」, 『시뮬라시옹』, 하태환 옮김, 민음사, 198-204면.

37) 에른스트 블로흐, 「미래소설과 맑스이후의 전체적 유토피아: 벨라미, 워리아 모리스, 카알라일, 헨리조지」, 『희망의 원리』, 박설호 옮김, 숲, 1993, 293-295면. 이러한 블로흐의 진술은 무엇보다 “역사적 진보란 오로지 빈곤에 대항함으로써 이룩된다”는 명제로부터 파생한다.

상의 비판이라는 ‘수단’이 없이 목표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블로흐의 SF 비판의 핵심은 오늘날까지도 반복되는 명제, 즉 “경제적 사항을 유지하게 누더기 깃듯이 부분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에 있었다.³⁸⁾

이런 비판 속에서라면 SF가 정직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재난의 미래 뿐이다. 왜냐하면 알튀세르의 헤겔 비판의 한 대목인 ‘표현적 인과성’ 논리(부분은 언제나 전체를 표현한다) 속에서 보자면,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응처럼 현재에서 미래를 유추해내는 방법으로는 근미래 서사의 종착지는 결국 재난 서사, 디스토피아 서사, 묵시록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보드리야르가 SF를 다름이 아니라 과도함, 즉 실제의 증폭증강 프로그램(n×1)으로 본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그걸 상상으로 뛰어넘으려 하면 공허 혹은 비판의 부재 현상이 찾아온다. 결국 표현적 인과성과 그 결과인 유기적 세계관이라는 근대의 원리와는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알튀세르가 말한 전체로 환원되지 않는 부분들의 복합성과 자율성에 관한 ‘구조적 인과성’이라는 대안은 ‘절합(articulation)’과 절합된 요소에 의한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을 허용한다³⁹⁾는 점에서 특정 요소의 외삽(extrapolation)과 그에 의한 세계의 변용 가능성이라는 SF의 정당성에 중대한 원천을 제공하는 듯 보인다.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자율성과 인지적 낯설게 하기에 따른 세계의 변용 사이에 모종의 진동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보드리야르와 거의 같은 시간에 다르코 수빈은 인지적 낯설게 하기를 SF의 특징으로 삼으며, SF의 변용(Metamorphoses)이라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유토피아의 실정성이 현재의 특정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바로 이 현재로부터 파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SF라는 장르가 “줄곧 미

38) 복도훈이 비판한 바 “한국문학에서 미래의 가상공간은 비현실적이며 물질적 하부구조에 대한 성찰 없는 중력 이탈의 세계라는 식의 담론”(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48면.)은 실상 그 연원이 세계적일 뿐 아니라 역사가 깊은 담론이다.

39) 프레드릭 제임슨, 『후기마르크스주의』, 김유동 옮김, 한길사, 2000, 150-153면 참조.

지의 이상적 환경, 집단(새로운 종족), 국가 상태, 지능 혹은 지상선(Supreme Good)의 다른 국면을 찾아내려는 희망들에 의해 (혹은 그 반대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나 증오에 의해) 그 짜임을 만들어 왔다”⁴⁰⁾고 할 때 그것이 빛을 그리든 암흑을 그리든 SF라는 명칭은 유토피아적 사상의 문학이라는 것⁴¹⁾이다. 보드리야르의 경우처럼 다르코 수빈 역시 ‘리얼리티’의 선재성을 부정하지만, 유토피아의 실정성을 인정하는 다르코 수빈으로서는 SF란 미래로 열린 픽션이자 현재를 인지적으로 낮설게 하는 핵심적 장치였다. 그렇다고 할 때 왜 SF가 포스트 역사(Post-History) 또는 포스트 이데올로기(Post-Ideology)로서의 역사의 종말 이후의 역사를 서사화하며 역사에 참여하는 새롭고도 유력한 방식이 되었는지가 비로소 짐작 가능해진다. 사회주의 국가의 종말과 역사의 종언론이 구가되는 상황, 즉 “모호한 재앙”은 묵시록과 메시아주의,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SF라는 장르의 세계적 제패를 낳은 게 아닐까. 재난의 시공간, 이른바 종말의 시간 사이에 ‘남아 있는 시간’을 사유(G. Agamben)하는 일이 어떤 외삽의 장치에 의한 재난의 회피 가능성 혹은 희망의 원리를 재점화했던 게 아닐까.

한편 당대 한국의 어떤 SF들, 특히 재난의 서사는 자본주의적 재난을 우회하여 유토피아 SF로 전환되어 간 것처럼 보인다. 즉 다름, 소수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한국문학의 이슈가 된 직후에 일어난 이 커다란 장르 전환은 그 직전의 신자유주의 비판의 문제를 일부 포함하는 대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속에서 한국에 가장 적합한 재난 서사의 형식을 찾아낸 듯 보인다. 재난의 일상화라는 감각은, 일상의 폭력과 그를 단박에 넘어서는 구조적 절합의 시도를 통해 미래의 구조를 새롭게 변형해 나간다. 현실계, 현실주의의 인력이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난 시공간의 사유가 처음으

40) Darko Suvi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Peter Lang AG, 2016(1979), p.18. 이 책의 서문 번역은 다음 서지를 참조. 다르코 수빈, 「낮설게 하기와 인지」, 문지혁복도훈 옮김, 『자음과모음』, 2015년 겨울호.

41) Darko Suvin, *ibid.*, p.25.

로 한국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해 왔던 것이다.

현실이 재난이고, 이 현실의 지속 가능성이 재앙이다. 한국의 당대 SF가 자본주의의 미래보다는 소수자의 미래 쪽으로 조금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과국의 등가성과 편재성(偏在性)-현실이 재난이다, 그러나 그 재난은 모두에게 등가적으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유가 있어야 유토피아 소설로서의 SF가 가능하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의 SF는 자연과학보다는 사회적 과학이 중심이 되며, 과학기술적 장치를 핵심으로 하는 하드 SF보다는 서사 장치로서의 과학 모티브들을 활용하는 소프트 SF를 주류로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나의 판단은 어찌면 문단 SF와 그 문턱들에 한정된 것일지 모른다.) 아이작 아시모프를 떠올리게 하는 하드 SF와 거리를 두되 브래드버리적인 사변을 포함하는 소프트 SF, 소비에트적 유토피아 서사를 포함하지만, 무엇보다 소수성의 미래에 대한 시적 전망과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 중 하나로 들어가 보자.

2) 한국의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와 과학 (뻘) 소설들

한국소설의 새로운 봄을 이끈 장르로 SF를 지적하기란 어렵지 않다.⁴²⁾ 그렇다고 할 때, SF와 함께 이 봄을 이끈 청소년 소설의 형태를 아울러 취하고 있기도 한 한 편의 SF 장편소설을 분석해보는 일도 이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황모과의 『우

42) 배문규 기자, 「올해 한국소설 판매량 역대 최다...여성독자들이 이끌고, SF·청소년 장르 다양해졌다」, 『경향신문』, 2020.9.22. 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로 볼 때 2020년의 SF는 457.8% 성장했다. 교보문고 기준 한국 소설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1%의 늘었는데, 이는 한국소설 판매가 정점을 찍었던 2012년보다도 4.3%가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이를 주도한 것이 SF(5.5배)와 청소년 문학(2배)이었고, 전체 한국소설 독자 중 약 70%가 여성이며 그 중 20-40대가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여성, 한국소설, SF라는 인접어, 성좌가 형성되는 셈인데, 김초엽, 정세랑이 베스트셀러 목록 2위와 5위에 올라 있다.

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페미니즘을 비롯한 소수자 이야기, SF, 청소년 소설이라는 최근 한국문학의 변동에 관한 키워드들의 교차점에 있는 소설이다. 페미니스트 SF 청소년 문학이라 할 이 작품의 외삽은 간단하다. 1990년 그 많은 여아들이 임신 중지가 일어나지 않고, 태어났다면? 이 외삽은 이 아이들이 다 태어나 자란 소설적 현재의 시점에서 반대의 설정으로 외삽된다. 1990년, 획기적이고 ‘간편한’ 임신중단약이 개발되었다면.

학기 초 교실 풍경이 떠올랐다. 너희들이 설칠 세계가 아니라고 말하던 애들이 생각났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배제한 애들은 모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세계에서 살다 온 걸까? ……(중략)……원래 그랬어야 할 세계가, 옹당 맞춰야 할 조건이, 자기들만의 세상이었던 거다. 그러니 우릴 보고 4차원이라고, 소수라고, 이질적인 존재라고 불렀던 거겠지. 그러니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마음 편히 잊고 살 수 있는 거겠지. 원래 없었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아빠 말대로라면 우리는 이스트엑스라는 성별 감별 중절약 따위가 등장하지 않았던 세계에서 태어나 살아왔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과거가 바뀌었고 중절약이 생겼다.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산모들이 동시에 약을 먹은 건 아닐 테니 현재에서 사라진 아이들도 시차를 두고 사라진 모양이었다.

아이들과 추리했던 7만 명이라는 숫자를 떠올려 봤다. 사라진 숫자 중 한 명이 해라라면? 7만이라는 숫자 하나하나가 품었을 삶의 무게를 떠올리다 아득해졌다.⁴³⁾

두 개의 세계가 있다. 평행 세계의 저쪽 세계에서 넘어온 아이들은 이 세계의 다른 자기를 죽이고 이 세계의 자기가 된다. 남, 여, 그로 분할되지 않는 성소수 모두에게 보다 평화롭고 보다 평등하던 세계는 재난의 장

43) 황모과,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2, 180-181면.

소가 된다. 이들의 살인은 일종의 전향인데, 그렇게 소설은 백래시 이후의 한국을 살인의 한 결절점임 1990년의 사건으로부터 파악해 간다. 친구들이, 소중한 남자친구가 사라져간다. 태어나지 않았거나 살해되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뛰어다니는 주인공 채진리는 죽은 자와 사라진 자를 기억하는 아이 은별과 만나고 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진리의 엄마 이영과 만나 다시금 7만의 여자 아이들이 있는 이 세계를 지키려 한다. “함께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 무언가 바뀔 가능성, 이야기를 새로 시작할 가능성, 고립된 시절이 끝날 가능성”(155면)을 찾아 나서는 이 숲 가쁜 여정은, 젊은 20-30대 여성과의 연대를 회구하는 작가의 소망과 공명하며 “겨우 살아남았다”(“진리도 생존자야. 우리가 기록했던 애들처럼”: 156면)는 이 시대의 강렬한 명제에 육박해간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현재, 즉 보다 나았을 2022년의 이야기인 이 소설은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승한다’는 불가능한 일을 통해 무언가 바뀔 가능성을 찾아내려 한다. 이야기를 새로 시작할 가능성을 열려 한다. 이 소설은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잘못된 과거와 비교적 이상적인 현재로 이행시켜 바로 지금을 ‘재난’의 장소로 인지토록 유도하는데, 그것은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이후의 한국에서라면 매우 적실한 외삽으로 보인다. 소설의 메시지는 간명하다. 더 나은 현재, 가능적 미래는 가능했던 과거였다. 따라서 재난의 현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부정의한 과거와 재난뿐인 현재 사이의 관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만약 “SF는 실재하지 않지만 가능한 것(the possible-but-not real)이며 형식(form)이 아닌 방식(mode)이다”(조애나 리스)라는 말이 참이라면, 이것은 가능한 것의 모드들을 과거에의 외삽으로 탐색하는 소설이다. 리치 켈빈의 말처럼 SF는 여성이 백 퍼센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에 대한 가능성, 인종적·윤리적·종교적 착취가 없는 세상의 가능성을 향해 열릴

수 있는 장르인 것⁴⁴⁾이다. 이 소설에서처럼 시간여행, 대체 역사, 엔트로피, 상대주의, 통일장 이론 등이 적절한 비유를 동반할 때 SF는 “여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해체하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레퍼뉴)⁴⁵⁾ 핵심적인 젠더 이슈, 즉 가부장제 해체, 모계 중심 사회, 평등 사회에의 탐험뿐 아니라, 이를 위한 대안 정부와 대안 조직의 시스템들 상상하는 데에, 이 장르는 기여해왔다. 비록 서구에서조차 여성 SF 작가의 본격적 등장 전까지, 즉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까지 전통적 우주 탐험과 기술 발전과 같은 ‘남성적 걱정들’이 SF의 주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페미니스트 SF 혹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의 성장은 장르 내재적인 것이기도 했다. SF는 성이 아니라 종의 관점에 중심이 놓이기에 남녀 양성, 하이브리드, 사이보그, 부분 정체성, 수행적 젠더 등과 같은 문제에 그 서사가 열려 있다. 김초엽은 여성 SF 작가들의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작가의 글에는 여성 서사와 유대가 또렷하다. ‘관내분실’에서는 모녀의 이야기가, ‘나의 우주 영웅’에서는 한 여성과 그를 롤모델로 삼는 여성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

김초엽: 한국 문학의 전반적 흐름이지. 나는 논픽션과 달리 소설을 쓸 때는 오히려 자전적인 서사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이다. 여성 인물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내가 독자로서 모험하는 여성들, 이성에 규범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을 많이 보고 싶은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천선란: 김초엽 작가의 작품은 아름답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기술이 꿈꾸는 미래는 반드시 김초엽 작가가 꿈꾸는 소설의 방향처럼 나아가면 좋겠다.⁴⁶⁾

44) 김효진, 『#SF #페미니즘 #그녀들의 이야기』, 요다, 2021, 15-16면. 이 책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SF는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쓴, 페미니즘 이론과 연결되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SF(헬렌 메릭)이다.

45) 김효진, 『#SF #페미니즘 #그녀들의 이야기』, 요다, 2021, 30면.

과학과 미학과 윤리가 모험하는 여성들의 서사를 회전하고 있는 양상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라 생각된다. 황모과는 위의 대답에서 재난의 이야기에 끌리는 자신을 설명하며 “정보나 기술 향유의 양극화를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디스토피아 쪽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디스토피아 서사를 통해 저지선을 만드는 것 같다”(황모과, 위 대답)고 말한다. 그러니까 SF는 재난의 저지선으로서 거기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그런 이유에서 장르의 다양화와 사회 이슈 변화에 따른 SF 리부트는 적어도 젠더적 차원에서는 말살된 유토피아의 상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성 SF 장르에의 괄목할만한 관심⁴⁷⁾은 한국 여성 독자들의 SF로의 진입이라는 사건⁴⁸⁾과 함께 팬덤화를 포함하는 “SF 페미니즘”으로 나아가는 듯 보인다. 여기서 SF 페미니즘이란 SF 안에서 일어나는 ‘페미니스트 SF’ 비평과 팬 활동, 집합적 실천을 의미하며 페미니스트 SF보다 포괄적인 개념(헨리 메릭)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도시 외부의 계급 없는 공동체 사회를 그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정당방위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⁴⁹⁾두는 서사의 패턴들, 즉 유토피아에의 희망과 여성 유대, 어린이 문제를 포함하는 대안적 미래라는 서사의 동선들이 종종 블로흐가 말한 대화과 치유 사이의 모호한 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집합적 실천인 한에서 그 잠재력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일찍이 소설 속 여주인공들의 체제적 경향에 대해 논평하며 조어나

46) 김초엽·심너을·천선란·황모과, 「SF 문학의 새물결」, 『ARENA』, 2020.10.8.

47) 배문규 기자, 「올해 한국소설 판매량 역대 최다…여성독자들이 이끌고, SF·청소년 장르 다양해졌다」, 『경향신문』, 2020.9.22.

48) 임지영 기자, 「과학소설 전성시대, 왜 지금 SF일까?」, 『시사In』, 2020.11.25. 알라딘에 따르면, 과학소설 독자 중 20대 여성이 1.4%(1999~2009년)에서 12.6%(2010~2019년)로 늘었고, 30대 여성은 11.1%에서 18.2%로 늘었다. 성차별 철폐의 역사와 SF 문학과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염두에 두더라도 주목할 만한 급진적 독자 팬덤의 변화이다.

49) 김효진, 위 책, 21면.

러스는 이를 돌파하는 두 가지 작법을 제시한 바 있다.⁵⁰⁾ 1) 버지니아 울프와 같이 서사적 양식이 아닌 서정적 구조를 이용할 것. 2) 다른 하나는 한쪽 성에 국한되지 않는 플롯을 이용하는 장르를 활용할 것. “여주인공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여자는 왜 글을 쓸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페미니스트 SF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옹호하며 내놓은 답변인데, 바로 지금 한국의 SF에도 해당하는 전략처럼도 들린다.

흥미로운 것은 황모과의 소설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가 과학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윤리를 기초로 평행 세계와 다중 우주와 같은 과학의 모티브들을 활용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소설의 어떤 대목들은 과학소설(SF)이라기보다는 거의 과학 밖 소설(ESF, Extro-Science Fiction)에 가까운 것처럼도 느껴진다. 채진리는 “내가 태어나지 않은 세상”이지만 “다른 아이들이 평범하게 웃고 울며 살아가는 모습”(190면)이 있는 세상을 선택하기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계는 뒤죽박죽이 되고 뼈뼌을 통한 초시간적 대화와 같은 과학 외적 장치들이 서사를 크게 뒤흔들어 버린다. 모든 과학소설은 다음과 같은 공리를 암묵적으로 공유한다. 즉 세계를 과학적 인식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 소설도 그러한 걸까.

과학소설(SF)은 어쨌든 현존하는 과학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미래과학의 가능성과 이를 양립시키면서 스릴러, 수수께끼, 서스펜스를 만들어 낸다. 과학을 미래로 투사해 복수의 가능성을 이성의 이름으로 긍정하는 서사가 SF인 것이다. 쾨팅 메이야수는 과학소설에서 과학 밖 소설을 따로 떼어 범주화하려 시도한 바 있다. 여기서 핵심은 “과학 밖 소설이 규정하는 이 특정한 상상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험과학이 이론을 전개할 수 없고 대상을 구성할 수 없도록 구조화된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탈구조화된 세계를 개념화해내는 것”이다. 메이야수는 이렇게 묻는

50) 조애나 러스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나현영 옮김, 포도밭출판사, 2020, 제7장 참조.

다. “현재 세계가 어느날 우리 발밑에서 사라질 수 있을 법한 유동적 지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⁵¹⁾ 과학 밖 소설에는 세 유형의 해결책이 있는데 1)재난, 2)우스꽝스러운 넌센스, 3)일상 소설 속에서 지끈거리는 불확실성과 같은 것들이다. 이 과학의 경계에서 과학 밖을 드러내는 일련의 과학 밖 소설(ESF)들은 현재의 인식=과학과 그것의 연장된 형태인 미래의 과학=인식을 넘어서거나, 그 궤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황모과의 소설은 메이아수가 말한 ‘과학 밖 소설’의 첫 번째 해결책 즉 불가해한 재난을 도입하는 작품처럼 보인다. 즉, 단일한 물리적 재난을 도입해 하루아침에 주인공들을 설명 불가능한 현상들이 대거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 빠뜨리는 것이다. 비록 미미한 불규칙성이 있고 재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구성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학적 인지와 재현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세계이다. 예컨대 로버트 찰스 윌슨의 『다위니아』(1999)의 경우, 1912년 하나의 재난에 의해 역사가 뒤바뀌고 유럽의 구시대가 악몽의 정글과 그 옛날 괴물이 창궐하는 이상한 대륙인 다위니아로 대체된다. 미국인들은 이제 종교 근본주의에 의해 통치되고, 청년 길 포드 로는 이 우주에서의 인류의 운명에 관한 계시를 따라가며 발견의 사명을 지닌 채 다위니아를 여행하게 된다. 황모과의 소설 역시 이런 방식의 물리적 재난과 설명 불가능한 현상들이 펼쳐지며, 이를 인지로서 통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누빔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느슨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과학적 모티브 혹은 장치의 설치와 과학 밖으로의 간헐적 이동이 페미니스트 SF에서 비교적 폭넓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왜일까. 과학소설, SF의 목적이 과학으로부터는 연역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닐까.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의 이끌림이 과학 그 자체 보다는 사회적 과학이라는 목표에 집중토록 하는 것은 아닐까. 프레드릭

51) 켈링 메이아수, 『형이상학과 과학 밖 소설』, 엄태연 옮김, 이학사, 2017.

제임슨의 다음의 진술은 SF의 사명, 특히 한국 페미니스트 SF와 재난의 서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암시점을 준다.

SF의 가장 심원한 사명이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음을 몇 번씩이고 실증하고 극화하는 것에 있으며, 일견 충실해 보이지만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면 구조적, 본질적으로 바짝 말라있는 표상을 통해서, 마르쿠제가 “유토피아적 상상력”이라고 불렀던 것, 즉 타자성과 근본적인 차이를 상상하는 힘이 우리 시대에는 고갈하고 있음을 다양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것은 실패에 의해 성공하는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고를 이끌어주는 탐승기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지의 것을 향해 출발했으나 정신을 차려보면 어쩔 수 없이 익숙한 것들 속에 폭 빠져서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그럼으로써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절대적 한계에 관한 반성으로 변용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부지불식간에, 마지못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⁵²⁾

말하자면 역사가 끝나고, 그래서 역사소설이 불가능해지고, 유토피아가 종언을 맞이했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유토피아적 충동의 질식이 모든 장소에서 점점 눈에 띄게 드러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SF는 독자의 유토피아적 사명을 재발견하는 장르로 재인식되었다. 유토피아적임과 동시에 SF이기도 한 일련의 강력한 작품들의 산출⁵³⁾은 이 과학이 일종의 사회적 과학임을 함의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르코 수빈의 인지(cognition)와 낯설게 하기(estrangement)라는 SF의 지표는 유토피아에 관한 사회적 상상력과 과학을 포유하기 위한 정의였다 하겠다. 사회적 과학과 자연과학의 동시적 고려가 인지라는 개념 만들기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한국 재난 서사는 바로 이 SF와 함께 어둠의 심연과 희망의 원리

52) Fredric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Verso, 2007, pp.288-289.

53) Fredric Jameson, *ibid.*, p.289.

를 함께 사고하는 장르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5. 미래의 기억-재난, 희망 그리고 평범한 미래

자본주의의 과국보다는 인류의 과국, 세계의 과국을 상상하는 게 더 쉬운 현실(S.지책)에서 재난 서사의 몫은 상당부분 SF 쪽으로도 이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월은 사회적 이슈의 전개로서 이어져 있으며 구조적 인과성의 결과이다. 물론 한국 SF의 부흥에는 식민주의의 무기로서 각인된 과학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나 한국 우주과학의 진전을 포함하는 물리적 현실 역시 작용하고 있을 터이다. 무엇보다 재난을 낳아 경험하며 과국의 미래를 디스토피아적 감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야말로 SF의 토양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전위적 형태로서의 한국과 그 일상화된 재난의 상황이 한국 SF 비약의 한 '동력'인지 모른다. 다른 현실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비약할 수밖에 없는 것. 문학장 내적으로는 경험적 공간의 상상력에 걸린 리얼한 소설들의 상대적 약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세계의 '끝'에서 '다른' 세계로의 서사적 이행, 재난과 희망의 절편이라 할 페미니스트 SF는 여성적 현실의 리얼한 변화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세계에의 상상을 보여주는 한편 바로 이 시간을 재난으로 재발견하는 서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페미니즘 리부트에 대한 최근의 백래시는 이 재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컨대 황모과는 이에 대해 지우려는 것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2022년, 한국의 대선 의제에서도 여성들은 사라졌다. 마치 사회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성 이슈는 깔끔하게 지워졌다. 초유의 일이다……(중략)……그러니 귀찮고 버겁지만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여기 있다고, 당신들의 의도대로 조용히 죽어가진

않겠다고. 지금 삶이 너무 벅찬 사람들의 몫까지 대신하겠다고.”⁵⁴⁾ 미래, 과거의 미래인 현재를 왜 디스토피아로 상상하는가.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 혹은 대안 없음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 재난 서사의 SF화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미래의 고고학이 설명하는 영역들과 현상적으로 중첩된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유토피아의 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엮이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서사들을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닐까. “미래를 기억하다”. 김연수가 최근의 SF들을 관찰하며 그 나름으로 내린 방법이 아마 이런 것일까. 미래를 기억하려는 의지가 미래를 구한다는 것. 미래의 재앙과 기술보다는 미래의 일상이 미래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

“어릴 때 내가 상상한 미래는 지구 멸망이나 대지진,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나 제3차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것 아니면 우주여행과 자기부상열차, 인공 지능 등의 낙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퍼센트에 수렴된다는 것을. 1999년에 내게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과 일어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⁵⁵⁾

미래의 일상을 재난으로부터 구하는 일. 재앙은 일견 보편적인 한편,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작위들(‘일반적 등가성’에 의한 목적 상실)의 결합에 의해 국지적·계급적·개인적 재난으로 편재(偏在)해 왔다. 그리고 이제 지구라는 행성 규모로도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의 등가성으로 다가와 있다. 이 글에서는 전반부의 재난의 편재성과 잠재적 보편성에 열린 한국

54) 황모과, 「작가의 말」,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2, 254면.

55) 김연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토록 평범한 미래』, 문학동네, 2022, 34-35면.

소설의 흐름들을 살펴보았다. 포기하지 않고 선택해야할 평범한 미래, 결절의 후반부가 남긴 질문,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과 종의 미래를 삶의 차원에서 기억하는 서사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숙가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임박한 재난과 가능한 선택을 견주는 사회적 상상력들의 도래가 한국 재난 서사의 매우 새로운 국면이자 한국문학의 정치성의 또 다른 한 장으로 열리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참고문헌 |

- 김연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토록 평범한 미래』, 문학동네, 2022.
- 김초엽·심너을·천선란·황모과, 「SF 문학의 새물결」 『ARENA』, 2020.10.8.
- 성석제, 『참말로 좋은 날』, 문학동네, 2006.
- 정이현, 「삼풍백화점」, 『오늘의 거짓말』, 문학과지성사, 2007(2020).
- 황모과,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2.
- 황정은,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 김예림, 「정체(政體), 인민 그리고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 『역사문제연구』 제32권, 2014.
- 김윤식, 「6.25 전쟁문학」, 『운명과 형식』, 숲, 1992.
- 김윤식, 「우리 문학의 사머니즘적 체질 비판」, 『운명과 형식』, 숲, 1992.
- 김효진, 『#SF #페미니즘 #그녀들의 이야기』, 요다, 2021.
-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 복도훈, 『목시록의 네 기사』, 자음과모음, 2012.
- 서영채, 『부끄러움과 죄의식』, 나무나무출판사, 2017.
- 심정명, 「3.11과 전후의 끝: 무의미한 죽음과 애도의 문제」, 『일본학보』 제106호, 2016.
- 이영재, 『아시아적 신체』, 소명출판, 2019.
- 황호덕, 「지금 문학이 어디 있는가, 스무고개—문학의 위치, '전위' 문학과 '후위' 문학 /비평 사이에 『하이픈』」, 『문학과 사회 하이픈』, 2021년 여름호, 문학과지성사, 2021.
- 가라타니 고진, 「교통에 대하여」,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김정원 옮김, 이산, 1999.
- 나오미 클라인,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 김소희 옮김, 모비덱스, 2021.
- 다르코 수빈, 「낮설게하기와 인지」, 문지혁·복도훈 옮김, 『자음과모음』, 2015년 겨울호.
-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박설호 옮김, 숲, 1993.
- 오다 마코토, 『전쟁인가 평화인가: '9월 11일' 이후의 세계를 생각한다』, 이규태·양현혜 옮김, 녹색평론사, 2004.

-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옮김, 새물결, 1997.
-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크르들과 공상과학」, 『시뮬라시옹』, 하태환 옮김, 민음사, 198-204면.
- 조애나 러스,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나현영 옮김, 포도밭출판사, 2020.
-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윤조원 옮김, 필로소픽, 2018.
- 퀼렝 메이야수, 『형이상학과 과학 밖 소설』, 엄태연 옮김, 이학사, 2017.
- 프레드릭 제임슨, 『후기마르크스주의』, 김유동 옮김, 한길사, 2000.
- ジャン=リュック・ナンシー 『フクシマの後で: 破局・技術・民主主義』, 渡名喜庸哲
訳, 以文社
- ジョン・ダワー 『敗北を抱きしめて』 三浦陽一・高杉忠明・田代泰子訳, 岩波書店,
2001
- 中島隆博, 『悪の哲学: 中国哲学の想像力』, 筑摩書房, 2012.
- George Heber Jone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 Kyo Bun Kwan,
1914.
- Darko Suvi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Peter Lang AG, 2016(1979)
- Fredric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Verso, 2007, pp.288-289.

<Abstract>

Genealogy of Korean Disaster Narratives

– From non-cognitive familiarity to cognitive estrangement

HWANG, Ho Duk

In this article, I reconstruct the Korean genealogy of disaster novels by examining the narratives related to historical disasters in modern Korea and the social imagination of SF novels.

Under the ideological constraints of re-catastrophizing disasters by overlapping natural history and history, Korean novels were often shaped into stories of non-cognitive familiarity. The experience of collapse and catastrophe in the late 1990s, as the end of development modernization and the beginning of neoliberalism, faced a series of meaningless deaths and called for counteractions to recognize ‘random deaths’ as ‘catastrophes.’ Korean novels experience the era of disaster narratives through historical recall as a chain of events (‘Erinnerung,’ W. Benjamin).

On the other hand, around 2015, when it would have been easier to depict the catastrophe of the world than the catastrophe of capitalism, the issue of minority emerged as a major topic in disaster narratives. For example, the epic transformation represented by the feminist reboot led to the prism of science fiction, creating a combination of disaster narrative and utopian science fiction. This transition was explained here as a transition from non-cognitive familiarity to cognitive affection, and furthermore to cognitive estrangement.

Key words: general equivalence, equivalence of catastrophe, ubiquity,

hierarchy, catastrophe, random deaths, calamity,
re-catastrophizing, non-cognitive familiarity, spree, exceptions
and routines, feminist utopia, cognitive estrangement

투 고 일: 2022년 11월 30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2022년 12월 26일